

建築家協會 嚴 德 紋 會 長

☆ 1月20日 大寒 전날인데도 봄비마냥 주룩 주룩 비가 내린다.
 전날 電話로 言約을 한 午前 10時 編輯者는 조흥은행 본점 앞 “개영빌딩” 6층 「自由建築 研究所」를 방문했다. ☆

編 「새해들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嚴 「네. 무엇 보다도 우선 우리들 세 단체가 보다 두터운 유대와 친목이 되어야 하겠어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상부상조가 되어야겠어요. 남의 협회라고 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가 한 집안 같이 견고한 유대작용을 이룩함으로써 서로가 사회적인 권위와 지위도 향상되는게 아니겠어요. 올해는 사업이전에 우리네 세단체가 한덩어리가 되는 운동을 전개하고 싶어요. 이르기 위해서 우리 세단체 합동 야유회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각 分野별로 운동회도 개최하고 싶고, 또 노래 자랑대회나 스캇치대회같은 친선놀이를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 단체에서 건축에 관한 종합지도 발간했음 해요. 올해는 우리네 세 단체의 견고한 유대와 친목을 하는 해라고 하고 싶군요」

編 「회장님께서 건축가가 되신 그 동기랄까 여기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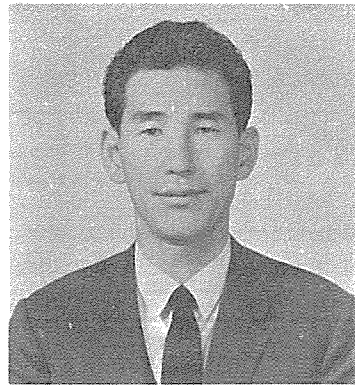
嚴 「네, 사실이지 좀 우스운 얘길는지는 모르지만 난 꼭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만 했…….」

編 「음악이라면 어떤 分野를…….」

嚴 「聲樂입니다. 테너에 속한 音色을 지녔어요. 이라고 보니 큰 뉴스스감이 되겠어요. 핫…… 그런데 聲樂에 대한 미련은 지금까지도 버려지지 않거든요. 총각 시절때 습득한 노래는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하는 때도 있어요. 내가 만약 음악가가 되었다더라면 건축가가 된것 보담야 낱지 않았을까 하고 말어요. 建築士로서 音樂인들이 더러 있는데 李鳳祚氏나 한상일氏 같은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랄때만 해도 예술 方面으로 진출하는데 사회적인 이해도 그리하려니와 첫째 父母

任들의 반대에 좌절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서 미술 方面에도 소질이 좀 있고해서 건축분야를 택하고 말았읍니다만」

編 「前年 國展에서 建築分野가 脫落된데 대해서 앞으로 家協會로서의 방안은 어떠하신지요?」



嚴 「國展에서 建築이 脫落된데는 무엇보다도 기성 건축가들이 힘을 등하시한테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國展에서의 建築이 新人 등용문의 구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出品作 역시 完成品이 아닌 주로 계획안만 내 놓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國展에 出品 한번 하자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그런데 國展이 끝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애쓰고 공들인 그것이 아궁이로 들어 가게 되니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어요. 외국에선 國展에 建築分野가 들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10年前에 그 당시는 建築이 美術의 한 分科로 있었어요. 그 당시 본인이 幹事역을 맡아 보고 있으면서 國展에 별도로 넣는 운동을 벌여서 된 것인데 지금 國展에서 建築이 脫落되었다해서 후회나 안타깝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社會나 一般人들에게 建築이 木手와 다르며, 建築 역시 예술로서의 가치성을 계몽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어요. 今年부터는 「大韓民國 建築寫眞展」을 開催하게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建築과 寫眞을 별개로 해달라고 당국에 건의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要求는 첫째, 실제건물을 위주로 한 파트 둘째, 계획안만 위주로 한 파트로 나누어서 그 파트별로 ㉠ 住居建築 ㉡ 公營建築 ㉢ 産業建築 ㉣ 都市計劃 및 團地計劃 ㉤ 實美裝式 등의 分野로 나누어서 施賞을 金. 銀. 銅 및 장려상으로 결정하며, 大賞은 大統領賞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展示는 國立美術館에서 4, 5월의 兩大선거 관계상 今年에만 4월 25일부터 三週동안 開催하나 來年부터는 정기적으로 5월10일부터 개최가 되겠어요.」

編 「저희 士協會에 대해서 그 어떤 改善점이 있다면…….」

嚴 「가급적이면 임원들의 重任은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새 일꾼들이 등용해서 참신한 의욕과 아이디어로서 力量있는 會員들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얘기 하고픈 것은 學校別로 組成된 파벌의식은 초월해서 똑 같은 建築士로서 성의와 열로서 肅心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건축사협회에서 잘 해 줘야 저희 家協會도 따라 잘 되는게 아니겠어요. 士協會와 家協會는 사회적인 인연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게 아니겠어요. 또 한가지 얘기 하고픈 것은 大單位的인 大學合同事務所를 設置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는 法的인 뒷받침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구위원회가 있어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만…… 그 실시는 1年後가 되더라도 말어요」

編 「끝으로 71年度의 建築界의 展望에 대해서……」

嚴 「한말로 말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해가 아닌가 봅니다. 그 이유로는 4·5월의 兩大 선거의 영향이 建築業務에 큰 영향이 되리라 보며 또 선거가 끝나면 4·5個月間은 정리 기간이고 보니 올해는 그야말로 최악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은 그 나라의 재정정책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선거로 인해서 건축정책이 계속되는 만큼 71년의 건축계의 展望은 어둡다고 하겠어요. 일부 서민주택의 양상은 많을진 몰라도 말어요.

건축가는 역시 재정에 민감한 업이니 만큼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어요」

編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

고

(편집부)

신년호부터는 본 협회의 대변지인 「건축사」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시도지부의 소개자료를 마감일자까지 꼭 본협회 편집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 (1) 해당시도지부의 시가전경 사진(도청 및 시청을 중심한 번화가로 할 것)
- (2) 해당시도지부의 연혁과 역대 임원 명단과 사진(역대 임원 명단은 지부장, 간사, 감사, 분소장을 포함할 것)
- (3) 각 시도지부의 게재 순위는 아래와 같음.
 - 1월호; 서울특별시지부
 - 2월호; 부산시지부
 - 3월호; 경기도지부
 - 4월호; 강원도지부
 - 5월호; 충청북도지부
 - 6월호; 충청남도지부
 - 7월호; 전라북도지부
 - 8월호; 전라남도지부
 - 9월호; 경상북도지부
 - 10월호; 경상남도지부
 - 11월호; 제주도지부
- (4) 제출은 전월 10일까지 필히 도착토록 할 것.
- (5) 기타 참고 자료도 우송바랍니다.

(81 페이지에서 계속)

최 병달 會員(慶北道 支部)

問: 地方 會員에게 新刊入荷圖書目錄의 送達 편의를 하여 주시면 펍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答: 本協會에서 韓國海外 出版物株式會社 書籍部에 直接 건의를 하였으니 全國 會員에게 新刊入荷目錄이 配達될 것입니다.

※ 韓國海外 出版物株式會社 書籍部는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 1가 71

(영한빌딩) 73-4262 74-3783